

惺齋 琴蘭秀의 心齋의 추구와 그 의미

신 소 윤*

- I. 서론
- II. 主敬과 心齋의 추구
- III. 心齋에 바탕한 문학적 형상화
 - 1. 本然之性의 회복을 위한 虛靜 지향
 - 2. 心齋의 경지에서 느끼는 道學的 興趣
- IV. 실천과 自得을 통한 도학적 세계의 구현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惺齋 琴蘭秀의 마음공부와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시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마음공부와 그 시문학이 지닌 의미를 밝힘으로써 성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성재는 退溪의 문인으로, 24세 때부터 『心經』을 접하며 마음공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마음공부에 있어서 敬을 중시했는데, 특히 顔淵의 ‘心齋’를 닮고자 노력했다. 심재의 마음 상태를 지향하며 虛心을 유지하기 위해 경을 통한 ‘고요함’의 확보와 ‘조장하지 않는[勿助長]’ 태도를 강조했다.

성재는 꾸준히 일상에서도 마음공부를 도모했으므로, 그의 시에 이에 대한 노력과 성취를 찾아볼 수 있다. 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

*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강사 / myrtle_0209@knu.ac.kr

어진다. 하나는 本然之性을 회복하기 위해 비어있으면서도 고요한[虛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심재의 마음으로 자연을 관조하며 興趣를 느끼는 것이다. 전자는 마음공부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면, 후자는 마음공부가 體化되어 길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내재된 즐거움을 나타낸다.

한편, 성재의 마음공부와 그 시문학이 지닌 의미로서, 현실 인식과 대응 문제를 주목하였다. 성재는 다양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하여 도학적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즉, 성재는 도학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실천과 自得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성재 금난수, 『심경』, 『심경부주』, 심재, 자득

I. 서론

금난수는 자가 聞遠, 호가 惺齋이다. 성재는 21세 때 橫城趙氏와 혼인하여 月川 趙穆(1524-1606)과 교유하기 시작했으며, 월천의 권유로 그의 스승인 退溪 李滉(1501-1570)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성재는 32세(1561년) 때 司馬試에 급제하기도 하고, 관직에 나아가기도 했으나, 그의 본령은 爲己之學에 있었다. 성재는 퇴계의 이른 시기 제자 중 한명이다.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퇴계가 보낸 편지나 주고받은 시들이 여럿 보인다.¹⁾ 이러한 관계성을 염두할 때 성재는 퇴계의 대표적인 문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성재의 학문적 특징과 관련하여 위기지학의 실천을 주목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문집과 『惺齋日記』를 함께 주목하여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간의 교유 양상을 주목한 연구이다.²⁾ 이 가운데 본고의 논의와 밀접한 성재의 위기지학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최영성은 성재가 퇴계의 학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涵養 공부를 통해 ‘常惺惺法’을 체득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³⁾ 이치역은 퇴계의 위기지학의 구축과 그 실천 정신이 제자들에게 이어진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성재를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⁴⁾ 안영석은 성재

-
- 1) 이외에도 성재는 『朱子書節要』 편찬, 陶山書堂 건립, 易東書院 건립 등 퇴계의 주요 사업에 참여했다. 성재의 아들 琴愷는 퇴계의 증손녀와 혼인하기도 하였다.(박현순, 「성재 금난수의 수학과 교유」, 『역사문화논총』 4, 신구문화사, 2008, 37쪽.)
 - 2) 후자의 논의의 경우, 『성재집』과 『성재일기』의 내용을 통해 성재가 일생동안 어떤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자세히 살펴며, 16세기 재지사족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현순, 「성재 금난수의 수학과 교유」, 『역사문화논총』 4, 신구문화사, 2008; 김종석, 「『성재일기』에 나타난 16세기 재지사족의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이연순, 「성재 금난수의 생애와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등의 논의가 있다.
 - 3) 최영성, 「성재 금난수의 학퇴계 정신과 주경함양 공부」, 『퇴계학과 유교문화』 2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1.

의 학문적 특징은 ‘敬義相須의 심학적 학문 성향’이며, 실천적 측면이 주목된다고 설명하였다.⁵⁾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재가 『心經』을 학문적 得力處로 여겼으며, 主敬涵養을 목적으로 위기지학에 힘썼다는 점이다. 이처럼 기존의 논의들은 성재의 학문적 노력과 성취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성재의 학문적 노력이 그의 시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문집 『惺齋先生文集』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편지, 雜著뿐만 아니라, 詩와 같은 문학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삶, 학문, 사상 등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재의 삶이나 철학 등을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성재의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시 창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성재가 특별히 마음공부에 천착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주자 성리학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內聖外王’, ‘修己治人’의 실천 주체가 ‘마음[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이다.⁶⁾ 성리학과 마음이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성재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마음’과 관련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마땅하다.

성재의 문집을 살펴보면, 늦어도 24세(1553년) 때쯤부터 『심경』에 관심을 가지고, 存心養性에 크게 관심을 기울인 듯하다.⁷⁾ 그가 25세(1554

4) 이치역, 「퇴계 위기지학의 특성과 그 정신의 전승」, 『퇴계학논집』 14, 퇴계학연구원, 2014.

5) 안영석, 「성재 금난수의 실천적 위기지학-퇴계심학의 실천적 계승과 발휘」,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원, 2020.

6) 김기주, 「『心經』에서 『心經附註』로: 미완의 ‘朱子學의 心學’」, 『퇴계학논집』 13, 영남 퇴계학연구원, 2013, 89쪽.

7) 琴蘭秀, 『惺齋先生文集』 卷三, <惺齋先生年譜>, “三十二年癸丑, 讀心經, 上二絶詩于退溪先生.” 연보에 따르면, 성재는 21세 때 월천에게 배우고 그 인연으로 퇴계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본문에 금난수의 작품을 인용하고 표기할 때, 琴蘭秀, 『惺齋集』 卷數, <작품명>

년) 때 東溪에 서재를 마련하자, 퇴계는 손수 ‘惺齋’라 이름 지으며 편액을 써 주기도 하였다. 성재의 마음공부는 당시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심경』을 특별히 주목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우리나라에 『심경』과 『心經附註』가 조선 전기에 유입된 이래, 이 책들은 먼저 士林派를 중심으로 읽혀졌으며, 이후 嶺南學派를 대표하는 퇴계와 南冥 曹植(1501-1572)에 의해 이 책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졌다.⁸⁾ 성재의 『심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퇴계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를 염두하면서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먼저 시 창작의 기저로서, 성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자 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성재는 성리학자로서 마음공부에 천착했던 인물이다. 성재가 위기지학에 뜻을 두었던 만큼 마음공부의 과정과 결과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는 성재가 마음공부를 실천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재 시를 이해할 바탕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성재’라는 號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마음공부에 있어서 敬을 중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이해하려 했다. 따라서 主敬을 비롯한 성재의 마음공부가 시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음공부와 그 시문학이 지닌 의미로서, 성재의 현실 인식과 대응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논의를 통해 성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은 『성재선생문집』이다. 이 문집은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 詩 90제 116수, 권2 書 23편·雜著 10편, 권3 記, 銘, 祭文, 年譜, 권4 부록, 「孤山亭題詠」, 跋文이 실려 있다.

으로 표기한다.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은 금난수·박미경 옮김, 『성재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8) 퇴계를 비롯한 영남학파가 『심경』을 특별히 중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우락, 『『심경』의 문학적 수용과 ‘마음’의 형상, 『영남 선비들의 공부론과 지역 문헌』, 경상북도청년유도회, 2023, 55-59쪽에 자세하다.

II. 主敬과 心齋의 추구

성재가 특별히 주목했던 『심경』은 송나라 西山 陳德秀(1178-1235)가 경전 및 도학자들의 저술 가운데 심성 수양과 관련된 격언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전술하였듯이 성재는 영남학파의 학문적 풍토 속에서 20대 때부터 『심경』 및 『심경부주』를 읽었다. 그는 평생토록 常惺法을 벗어나지 않는 存養 공부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⁹⁾ ‘상성성’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로, 마음이 昏昧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¹⁰⁾

(가)

西山一部倡斯文
敬義相須養本源
四子遺書共終始
何須別路更求門

서산의 한 부 서적 사문을 창도하니
경과 의 서로 도움 수양의 근본이네
네 선생이 남긴 글 시종을 함께하니
어찌 굳이 다른 길로 다시 문을 찾으랴¹¹⁾

(나)

況我之衷
則聖之心
不以愚而自棄
不以聖而自弛
有爲者亦若是
豈賢愚之有二
過而能悔
迺後迺箴

하물며 나의 마음은
바로 성인을 본받은 마음이니
어리석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성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이하지 말아야지
일을 이루려는 자는 또한 이같이 해야 하니
어찌 어질고 어리석음의 구분이 있으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뉘우치며
이에 고치고 이에 경계하네

9) 琴蘭秀, 『惺齋集』 卷一, <序>, “惺齋二字, 又師門所命也, 主敬單傳之訣, 密付於當日, 而先生之日用存養, 不出於常惺之法, 則庶不負俛焉孳孳, 以遂此願之訓, 而有足可徵於後.”

10) 『心經附註』 卷一, <敬以直內章>, “上蔡謝氏曰: 敬是常惺惺法.”

『心經附註』 卷一, <敬以直內章>, “朱子曰: 惺惺乃心不昏昧之謂, 只此便是敬.”

본고에서 인용한 『心經附註』는 진덕수, 성백효 역, 『心經附註』, 전통문화연구회, 2006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11) 琴蘭秀, 『惺齋集』 卷一, <讀心經書二絕上退溪先生> 一首

顧謨明命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보아
非禮則禁	예가 아닌 것을 금한다면
上帝是臨	이것이 바로 상제가 임한 것이니
敢不欽欽	감히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으랴
爰刻銘於靈臺	이에 마음에 굳게 새겨
如履薄而臨深	얇은 얼음과 깊은 못에 임한 듯하리라 ¹²⁾

(가)와 (나)는 성재가 마음을 공부하는 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먼저 (가)는 성재가 24세 때 『심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읊은 시 중 1수이다. 성재는 『심경』을 읽고 敬과 義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수양의 근본임을 깨닫는다. 일찍이 敬義 夾持를 추구하는 수양론은 天德, 즉 성인의 덕에 도달하는 방법으로,¹³⁾ 성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경의’의 확립은 조선조 성리학자들에게 주된 관심사였다.

성재 또한 마찬가지로 경의의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마음 수양을 통해 근원으로 거슬러 갈 수 있으므로, 이어지는 2수에서 성재는 “창은 밝고 책상은 깨끗하여 책 읽기 마땅하니, 산 구름에게 분부하여 마을 문 닫게 했네[窓明几淨書宜讀, 分付山雲鎖洞門].”¹⁴⁾라 하여 진지하게 마음을 수양하리라 다짐한다.¹⁵⁾ 이는 퇴계가 “『심경』에 잠심하여 공부를 쌓는다면 도에 들어가는 문은 이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¹⁶⁾라고 한 것처럼, 성재 역시 『심경』을 통해 성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좌우명>의 일부 내용이다. ‘좌우명’이니, 성재의 삶이나 학문·철학적 지표 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

12) 琴蘭秀, 『惺齋集』 卷三, <座右銘>

13) 『近思錄』 卷二, “敬義夾持直上, 達天德自此.”

『周易』, <坤卦 文言>, “敬以直內, 義以方外.”

14) 琴蘭秀, 『惺齋集』 卷一, <讀心經書二絕上退溪先生> 二首

15) 『心經附註』 <心經贊>, “明窓棐几, 清書鑪薰, 開卷肅然, 事我天君.”

16) 琴蘭秀, 『惺齋集』 卷一, <讀心經書二絕上退溪先生>, “聖遠千秋文自文, 幸從溪路溯眞源.”

면 성인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재는 비록 자신은 본질이 어리석지만 만약 잘못을 저지른다면 뉘우치고, 고치고, 경계하여 성인을 닮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 밝은 明을 따라 禮에 맞게 하며,恭敬하리라 다짐했다. 이는 성인의 마음을 갖추기 위해 경을 유지해야 함을 말한 것인데, 특히 ‘顧諟明命’~‘履薄而臨深’까지의 내용에 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上帝是臨, 敢不欽欽’은 『심경부주』 <上帝臨女章>에 “『詩經』에 이르기를 ‘상제가 너를 굽어보시니 마음을 두 가지로 하지 말라.’하고, 또 이르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상제가 너를 굽어보신다[詩曰, 上帝臨女, 無貳爾心, 又曰, 無貳無虞, 上帝臨女].’”라 하였으니 공경하고 삼가는 것을 말하며, ‘履薄而臨深’도 『시경』 <小旻>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못에 임하는 듯 하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한다[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는 구절에서 나온 말로, 조심하고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삼감, 공경, 조심 등은 경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 때문에 성재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경에 바탕한 성인의 마음가짐을 좇겠노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성재가 성인의 마음을 본받으려 노력한 가운데, 특별히 ‘顔淵’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아래의 글은 <류이현의 옥연정에 대한 명[柳而見玉淵亭銘]>이다.

수면은 진주같이 빛나고/ 물결 한가운데 거울처럼 밝네/ 마음의 찌꺼기를 정결하게 다 씻어 내니/ 온갖 이치가 이에 함양되네/ 혼탁한 물결에 빠진다면/ 물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릴 것 같으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법/ 아주 잠

17) 『心經附註』 卷四, <求放心齋銘>, “勉齋黃氏曰: 心者, 神明之舍, 虛靈洞徹, 具衆理而應萬物者也, 然耳目口鼻之欲, 喜怒哀樂之私, 皆足以爲吾心之累也, 此心, 一爲物欲所累, 則奔逸流蕩, 失其至理, 而無所不至矣, 是以, 古之聖賢, 戰戰兢兢, 靜存動察, 如履淵冰, 如奉槃水, 不使此心少有所放, 則成性存存而道義行矣, 此孟子求放心之一語, 所以警學者之意, 切矣, 自秦漢以來, 學者所習, 不曰詞章之富, 則曰記問之博也, 視古人存心之學, 爲何事哉, 及周程, 倡明聖學, 以繼孟子不傳之緒, 故其所以誨門人者, 尤先於持敬, 敬則此心自存, 而所以求放心之要旨歟.”

간이라도 성대히 흐르는 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 아니라/ 장마가 개이고 안개가 걷히면/ 본체는 더없이 맑아지리라/ 그러므로 군자는/ 함양함을 귀히 여기니/ 물결을 보라는 가르침/ 못을 굽어보며 날로 성찰하네……내 드디어 즐거이 정자에 명을 지어/ 안연의 심재에 비유해보노라.¹⁸⁾

而見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의 字이며, 玉淵亭은 서애가 河回에 세운 정자이다. 이 작품에서 성재는 하회를 둘러싼 채 흐르는 물[水]을 굽어보며, 그 형용과 성질 등을 이용해 도의 본체, 성찰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 물은 사람의 마음과 닮아 있다. 물이 바람이나 파도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외물에 영향을 받는다. 또 사람이 흐려진 물에 사람이 빠지면 물인지 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외물에 영향을 받아 흐려지면 彼我 구별을 막기도 한다. 또 물의 本體의 ‘맑음’도 사람의 마음과 닮아있다. 물이 장마나 안개와 같은 장애물이 사라지면 본체가 맑아지듯이, 사람의 마음도 본디 순전한 性을 부여받아 人欲과 같은 장애물이 사라지면 맑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에 주목하여 성재는 물을 날로 성찰해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성재는 이러한 물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 안연의 마음을 떠올린다. 안연의 心齋는 『莊子』 <人間世>에 제시된 마음 수양법이다.

顔回가 말하였다. “감히 마음을 재계하는 것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仲尼가 말하였다. “너는 뜻을 한결같이 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지 말고 氣로 들어야 한다. 귀는 소리를 들음에 그치고 마음은 부합하는 데에 그친다. 기는 마음을 텅 비워서 物을 기다리는 것이다. 오직 道만이 비어 있는 곳에 모이니 비어있는 것이 마음의 재계이다.” 안회가 말하였다. “제가 아직 마음을 재계하지 않았을 때는 실로 저 자신이 있었는데, 마음을 재계한 뒤에는 비로소 제가

18) 琴蘭秀, 『惺齋集』 卷三, <柳而見玉淵亭銘>, “珠光水面, 鏡明波心, 查滓淨盡, 萬理斯涵. 如汨濁浪, 不辨涯涘, 如被風盪, 波濤激起, 造次淵渾, 而豈水性, 潦收霧霽, 本體之澄, 是以君子, 所貴涵養, 觀瀾有訓, 臨淵日省……余遂樂爲銘亭, 取譬顔氏之心齋”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웠다고 이를 만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였다. “극진하다.”¹⁹⁾

공자는 안연에게 심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함을 일러준다. 이 글에 따르면, 심재는 텅 빈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感覺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귀가 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것처럼, 耳目과 같은 감각기관은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 단면만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공자는 귀보다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것도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사물을 인지하거나 분별하는 등 先驗하는 지식으로 이해할 뿐이다.²⁰⁾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자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虛而待物’해야 한다고 한다. 즉 공자는 감각기관이나 지식과 같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채 사물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뜻을 한결같이 하여 마음을 비우면 종래에는 나를 잃어버리는 경지인 ‘無我’에 이르게 되는데, 이로써 마음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 太極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즉, 마음을 비우면 외물의 자극이 없을 때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외물의 자극이 있을 때 적실하게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¹⁾

“저 문 닫힌 집을 보라. 비어 있는 방에 햇살이 비치니 吉祥은 고요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또한 (길상이 머물지 않는 것은) 마음이 고요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²²⁾

19) 『莊子』, <人間世> 一章, “回曰: 敢問心齋, 仲尼曰: 若一志, 無聽之以耳, 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 而聽之以氣, 聽止於耳, 心止於符, 氣也者, 虛而待物者也, 唯道集虛, 虛者心齋也, 顏回曰: 回之未始得使, 實自回也, 得使之也, 未始有回也, 可謂虛乎, 夫子曰: 盡矣.”

20) 이유헌, 「전국시대 문헌에서 마음[心]의 의미와 마음공부의 방법: 『장자』, 『관자』, 『순자』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6-2, 한국교육사상학회, 2022, 170쪽.

21) 이치역, 「敬의 철학과 理의 철학」,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323쪽.

이어지는 대화에서 공자는 안연에게 虛心(비어있는 마음)을 비유하기를 위와 같이 ‘虛室生白’이라 표현한다. 마음을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한 것인데, 이는 朱子가 孟子의 ‘求放心’을 논하며, 몸을 ‘집’, 마음을 ‘집의 주인’에 비유한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²³⁾ 여기서 虛室은 비어있는 마음을, 이 방에 깃드는 햇살, 상서로운 조짐은 맥락상 道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도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요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성재는 이러한 마음의 고요함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경’을 추구한다.

虎尾春水寄我生	호랑이 꼬리나 봄날 살얼음 내 생에 붙어 있는데
東溪頗喜室虛明	동계의 집이 환하고 밝아 자못 기쁘구나
聖門自有南車訓	성인의 문에 절로 지남거 같은 가르침 있어
爐案前頭得細評	화롯가 책상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네 ²⁴⁾

퇴계가 손수 ‘성재’라는 편액을 써준 동계의 서실에서 느낀 감흥을 읊은 시이다. 虎尾春水은 『書經』〈君牙〉에 나오는 말로,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이, 봄날 살얼음을 건너듯이[若蹈虎尾, 涉于春冰].’라 하여 항상 조심하고 삼감을 의미한다. 이는 성재가 평생을 자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가 종신토록 경의 상태를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그가 마음에 경의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동계는 환하게 비고 밝은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앞서 공자와 안연의 대화에 등장했던 ‘허실생백’과 유사하다. 성재가 경으로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니, 그가 있는 書室에 빛이 머문 것이다.

한편, 성재는 虛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을 통한 ‘고요함’의 확보 외

22) 『莊子』, 〈人間世〉一章, “瞻彼闕者虛室, 生白, 吉祥止止, 夫且不止.”

23)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연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225쪽.

24) 琴蘭秀, 『惺齋集』 卷一, 〈甲寅仲春, 築書室於東溪之上, 爲讀書藏修之所, 宅地閒曠, 泉石可愛, 先生手書惺齋扁額賜之, 又有臨鏡臺, 風乎臺, 總春臺, 活源塘諸詩, 不勝感佩, 遂用其韻, 甲寅〉 二首

에도 ‘조장하지 않는[勿助長]’ 태도를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부끄럽고 한스러운 것은, 산에 막 들어올 때는 마음을 씻고 생각을 떨쳐내고 책상에서 책을 보며 心身을 가다듬어 本源을 함양하여 뒷날 그 도움을 받는 바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다른 세속적인 일에 휘둘리거나 일 때문에 곧장 나오게 되어 공부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山門을 나서자마자 귀로 듣는 소리와 눈으로 보는 빛깔이 사물의 끝없는 변화에 접하기만 하면 결국 그나마 조금 얻은 것마저도 보존하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려 말이나 행동에서 한 가지도 볼 만한 것이 없었으니, 오히려 세속에 빠져 사는 속된 부류만도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마다 끝내 소인이 되교야 말았으니, 이를 통해서 사람이 수양하는 것은 어떻게 힘쓰는가에 달려 있지, 있는 곳이 떠들썩하거나 조용한 것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았다.²⁵⁾

성재는 淸涼山을 자주 왕래하며 공부를 했다. 처음에 산에 들어갈 때는 근본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공부에 전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小人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학문의 근본인 마음공부의 실패를 밀거름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다. 마음공부는 일부러 조용한 곳, 시끄러운 곳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助長하지 않는 것이다. 성재가 깨달은 마음공부란 억지로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경을 잊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여 마음공부가 몸에 배어들도록[體化] 힘쓰는 것이다.²⁶⁾ 『심경부주』에서 주자는 ‘마음에는 한 가지 사물도 머물러 두어서

25) 琴蘭秀, 『惺齋集』 卷三, <普賢菴壁上 書前後入山記>, “其中尤有所可愧可恨者, 方其入山之時, 洗心滌慮, 對案觀書, 收拾身心, 涵養本源, 以爲他日受用之地, 而被他俗務擾奪, 或因事卽出, 做功不專, 纔出山門, 耳聲目色接事物無窮之變, 則竟未能保其些少所得而並失之, 其於動靜云爲, 無一可觀, 反不如沒頭塵土之俗流, 至今貿貿, 終不免小人之歸, 是知人之所養, 在用功之如何, 不係於所處之閑靜也.”

26) “又曰日用之間, 主敬窮理, 親切用工, 眞積力久, 則有以의 見聖言之不我欺, 何憂用功之未端的耶, 熟觀前賢之論此事也, 不可強力把捉, 亦不可急迫制縛, 如此則非但無成, 必至生病, 須寬著意思, 優遊涵泳, 而惺惺主人常不失照管.”(琴蘭秀, 『惺齋集』 卷三, <惺齋先生年譜> 三二年)이라 하여 퇴계가 보낸 편지에도 ‘조장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보인다.

는 안 된다.’²⁷⁾고 하였다. 마음은 사물의 변화에 應하는 것이지 매이거나 속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재는 체화된 경공부를 통해 허심을 이루며 순전한 마음을 보존하고자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Ⅲ. 心齋에 바탕한 문학적 형상화

성재는 경을 바탕으로 心性의 본원을 함양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특히 ‘허심’과 ‘조장하지 않는 태도’를 지향하였으므로, 자연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마음공부를 도모했다. 이러한 마음공부에 대한 노력과 성취는 성재 시에 잘 나타난다. 성재 시는 약 90제 116수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퇴계의 문하에 나아가 배우던 20대 때의 작품을 시작으로 70대 때까지 그의 일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선명함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한 마음공부가 잘 드러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本然之性을 회복하기 위해 비어있으면서도 고요한[虛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심재의 마음으로 자연을 관조하며 興趣를 느끼는 것이다. 전자는 마음공부를 실천하는 면모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면, 후자는 마음공부가 體化되어 수양의 실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 안에 내재된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1. 本然之性の 회복을 위한 虛靜 지향

성재는 일찍이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으며, 20대 때 퇴계의 문하에 들며 더 절실히 학문과 수양을 실천하였다. 그는 50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는데, 70세까지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27) 『心經附註』卷二, <正心章>, “心不可有一物.”

도 종신토록 자기 수양을 다하였다.²⁸⁾ 실제로, 성재는 관직에 나아가기 전부터 자기 수양이 부족하다며 과거 공부를 사절하는 뜻을 굳게 내비쳐 퇴계가 칭찬한 바 있었다.²⁹⁾ 또, 늘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기르는 요체와 강론하고 질문한 여러 기록을 손수 베껴 자리 오른쪽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보며 반성하기도 하였다.³⁰⁾

雲捲月露體
塵掃鏡還明
如能淨人慾
天理自昭呈

구름이 걷히면 달이 몸을 드러내고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이 다시 밝아지듯
사람 욕심을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하늘 이치가 저절로 밝게 나타나리라³¹⁾

성재가 이러한 수양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은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遏人欲存天理’는 『심경』에서 말하는 수양론의 핵심이다. ‘알인욕’은 이미 思慮나 감정이 발했을 때[已發時]의 공부이며, ‘존천리’는 사려나 감정이 발하지 않았을 때[未發時]의 수양 공부에 해당한다.³²⁾

위의 시는 알인욕 존천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구름=먼지=욕심’과 ‘달=거울=천리를 보존한 마음’이 對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성재는 유사한 속성을 주목하여 구름, 먼지, 욕심은 장애물로, 달, 거울, 천리를 보존한 마음은 本體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인욕(장애물)을 제거[遏]하여 本性을 보존[存]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28) 성재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연순, 「성재 금난수의 생애와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李滉, 『退溪集』 卷二, <送琴聞遠讀書清涼山, 用前韻, 蓋聞遠, 乃敬仲之甥, 而澤卿, 敬仲今皆下世, 因聞遠之行, 而有懷其人, 故次前韻以贈云>, “正是槐黃爭走日, 愛君堅坐玩書塵.”

30) 琴蘭秀, 『惺齋集』 卷三, <惺齋先生年譜> 四十五年

31) 琴蘭秀, 『惺齋集』 卷一, <偶書>

32) 오석원, 「『심경』의 구성과 수양론 연구(二)」, 『동양철학연구』 37, 동양철학연구회, 2004, 116쪽.

등장하는 달, 거울, 마음이 밝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비어있으면서
고요[虛靜]하기 때문이다. 도의 보존 및 회복을 위한 전제는 바로 ‘허정’
의 확보에 있으므로, 성재는 사물을 바라봄에 있어 허정을 강조하는 모
습이 나타난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일상 중에 끊임없이 인욕에 흔들린다. 도심은 이
러한 인욕(인심)을 억제하여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성재 시에는 수양의
실천을 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으로 허정한 마음을 갖추으
로써 도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아래의 시를 보자.

(가)

奔走風波患失人
安閒不似退溪濱
何當遊歷還歸早
更向天淵學隱淪

풍파에 분주히 잃을 것을 근심하는 사람
편안함과 한가함 퇴계 물가만 못구나
언제쯤이면 유람하다가 일찌감치 돌아가
다시 천연대에서 은거하는 법을 배우라³³⁾

(나)

江城逢著養眞人
時到清香寂寞濱
若與先生同隱此
滔滔慾浪免沈淪

강성에서 참됨을 잘 기르는 사람과 만나고
이따금 청향당의 고요한 물가로 이르네
만일 선생과 함께 이곳에 은거한다면
도도한 욕심의 물결에 빠지지 않으리³⁴⁾

(가)는 성재가 32세 때 丹城에 있으면서 지은 작품이다. 그는 여기에
서 자신을 ‘풍파에 무엇인가를 잃을까 근심하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
다. 그와 對를 이루는 것이 ‘퇴계 물가’이다. 먼저 그가 근심하는 이유는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마음은 이미 욕심이나 사사로움 같은 인욕에 휩쓸려 있다. 이와 달리 퇴
계 물가는 편안함과 한가함을 갖추었다. 퇴계의 물가는 퇴계의 암자인
養眞庵을 지나는 일명 土溪일 수도 있고, 퇴계라는 인물 그 자체일 수도

33) 琴蘭秀, 『惺齋集』 卷一, 〈丹城客中 伏次退溪先生寄詩一絕〉

34) 琴蘭秀, 『惺齋集』 卷一, 〈訪清香堂李公源 相對甚歡 次退溪先生韻以贈 仍次二絕奉
呈〉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퇴계 물가(퇴계)는 비어있어 외물에 영향을 받지 않아 편안하고 한가하다는 것이다. 즉, 퇴계 물가는 ‘천리를 보존한 상태’이지만 성재는 ‘인욕으로 인해 마음을 놓쳐버린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성재는 하루빨리 퇴계 물가에 있는 천연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허정한 마음의 회구를 통한 알인욕의 수양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清香堂 李源(1501-1568)을 만나 읊은 시이다. 강성은 단성의 옛 지명이다. 성재는 단성에서 만난 청향당을 본성을 잘 기르는 사람[養眞人]이라 하며 그 훌륭한 인품을 설명하고, 이어서 청향당의 고요함을 포착하였다. 성재는 청향당의 인간됨과 물가에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하다. 이는 청향당과 물가에 은거한다면 마음이 욕심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성재가 보기에 청향당은 이미 인욕을 제거하여 본성을 잘 기른 사람이다. 마음에 욕심을 이겨내면 도심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재는 청향당을 따라 은거한다면 자신도 도심이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청향당이 虛心을 유지하고 있어 외물(욕심)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인심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도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마음공부의 핵심이며, 성리학의 수양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진덕수는 일찍이 심학의 연원을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³⁵⁾라는 16글자로 말하였다. 인심을 억제하고 도심을 잘 지키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精一’하게 하는 것이다. 성재는 마음을 정일하게 하는 요법이 바로 ‘경’에 있음을 알았다. 이는 퇴계가 성재에게 보낸 <동계의 금문원 성성재에게[琴聞遠東溪惺惺齋]>라는 시에 “마음을 정일하는 데 경이 핵심이니, 지극히 깨어있는 자리 절로 밝으리라[精一心傳敬是要, 儘惺惺地自昭昭].”라고 한 것에서도 마음을 정

35) 『心經附註』 卷一, <人心道心章>

일하게 하는 방법이 경 공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재는 마음에 경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허정한 마음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다. 성재의 다른 시에서 마음 수양과 관련하여 主一이나 愼獨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경이 허정한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³⁶⁾ 이처럼 성재 시에는 일상의 動靜 속에서 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2. 心齋의 경지에서 느끼는 道學的 興趣

성재는 평소 山水癖이 있음을 고백할 만큼 자연을 사랑했다.³⁷⁾ 그는 “아흔 날 봄빛을 차례대로 찾다가, 시인은 몇 편 시 읊는 데 다 써 버리고, 산사에서 꽃 찾는 흥취 찾으려다가, 시냇가 푸른 나무 그늘 밑에 앉았네[九十春光取次尋，騷人費盡幾篇吟，卻將山寺探花興，替向溪邊坐綠陰].”³⁸⁾라며, 산수의 아름다운 風光을 마주하며 느낀 흥취를 자연스럽게 시로 읊기도 했다.

갑자년(1564) 여름에 내가 孤山에서 선생을 찾아가 뵈었는데 선생께서 지팡이를 짚고 天淵臺를 한가롭게 거닐고 계셨다. 당시에 바람과 햇살이 따뜻하고 경치는 화창하여 天理가 유행하여 막힘이 없는 오묘함에 대해 위로 관찰하고 아래로 살펴서 알았다. 선생께서 “오늘 마음에 맞는 경지[會心境]를 만났는데 그대가 이런 즈음에 오니, 또 마음이 맞는 사람[會心人]을 얻었구나.”라고 하셨다. 인하여 나아가서 묻기를, “鳶飛魚躍을 子思가 인용하여, 위아래로 밝게 드러나는 이치를 밝히면서 특별히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한다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니,

36) 예컨대, <讀先師心經後論 更用前韻 二絕>이라는 시에서 “舜禹相傳到孔文，洋洋洙泗接流源，始知妙契同羣聖，主一關頭覓路門。”이라 하여 主一으로서 마음을 수양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甲寅仲春 築書室於東溪之上 爲讀書藏修之所 宅地閒曠泉石可愛 先生手書惺齋扁額賜之 又有臨鏡臺風乎臺總春臺活源塘諸詩 不勝感佩遂用其韻>이라는 시에서 “虎尾春水寄我生，東溪頗喜室虛明。”이라 하여 愼獨을 통한 마음공부의 즐거움을 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7) 琴蘭秀, 『惺齋集』 卷一, <南征>, “平生山水願，馴致烟霞癖.”

38) 琴蘭秀, 『惺齋集』 卷一, <次趙士敬穆韻二絕>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사물의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치요. 솔개가 하늘 높이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어오르는 것이 어찌 억지로 힘써서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조금이라도 작위적인 것이 관계된다면 이치의 절로 그러함이 아니다.”³⁹⁾

성재는 퇴계의 곁에서 수학하며, 陶山書堂 건축의 계획과 완성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는 도산서당이 완성되자 <도산서당을 건립한 일을 기록하다[陶山書堂營建記事]>라는 글을 써서 서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건물의 방향이 어디에 있으며, 그 공간의 기능은 무엇이며,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화 등을 다루었다. 위의 글은 그 기록의 일 부분이다. 성재는 35세(1564년) 여름에, 퇴계를 만나기 위해 고산에서 천연대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天理의 오묘함을 깨닫는데, 더 절실히 이해하기 위해 퇴계에게 이치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에 퇴계는 각 사물의 자연스러움이 곧 이치임을 알려준다. 사물의 자연스러움은 억지로 힘쓰거나 작위적으로 행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단지 퇴계처럼 마음을 비우고 悠悠自適하여 천지의 온화한 경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행되는 천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성재는 이러한 사물의 조화를 포착하여 天人合一에 도달하는 도학적 흥취의 세계를 추구했다.

(가)

一歲中間六度歸	한 해 사이에 여섯 차례 돌아와도
四時佳興得無違	사계절 아름다운 흥취 어김이 없네
紅花落盡青林暗	붉은 꽃 모두 떨어지자 푸른 숲 무성하고
黃葉飄餘白雪飛	국화 잎 흩날린 뒤 흰 눈이 휘날리네
砂峽乘風披袂服	사협에서 바람 타고 옷자락 펄럭이며
長潭逢雨荷簑衣	장담에서 비 만나면 도롱이 걸치네
箇中別有風流在	그 안에 특별한 풍류가 있으니

39) 琴蘭秀, 『惺齋集』 卷三, <陶山書堂營建記事>, “甲子夏, 蘭秀自孤山往拜先生, 先生杖屨逍遙於臺上, 時風日暄妍, 景物和暢, 天理流行, 無所滯礙之妙, 可得於仰觀俯察矣, 先生曰: 今日遇會心境, 君此際來到, 又得會心人矣, 因進而問曰: 鳶飛魚躍, 子思子引之以明上下昭著之理, 而特言鳶之飛魚之躍何也, 先生曰: 凡事物之自然者, 是理也, 鳶之戾天, 魚之躍淵, 豈勉強而爲之歟, 纔涉於有所作爲, 非理之自然也.”

醉向寒波弄月輝

술 취해 찬 물결 대하여 달빛을 즐기네⁴⁰⁾

(나)

乾坤身世水雲間

천지에 이내 몸 물과 구름 사이

物色秋風次第看

가을바람 부는 경치 차례로 보았네

待得千林紅葉盡

숲속 붉은 단풍이 다 지는 때

霜英還對滿庭寒

서리 맞은 꽃이 뜰 가득한 찬 기운 대하네

笑向黃花把酒卮

술잔을 잡고 노란 국화꽃 향해 웃으며

十年心事擬東籬

십 년 심사 동쪽 울타리에 견주어 보네

還慙筆力衰遲甚

필력이 몹시 노쇠하여 되려 부끄러우니

盡日吟來未有詩

종일 읊조려도 시 한편이 없네⁴¹⁾

(가)는 1564년, 낙동강 명승지 중 하나인 孤山精舍(日洞精舍)를 마련한 해에 지은 시이다. 정사 주위에는 깎아지른 듯한 翠壁이 서 있으며 고산이 마주해있고 그 중간에 맑은 못이 있었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빠진 성재는 정사를 방문하지 않은 달이 없고 또 가기만 하면 돌아오기를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한다.⁴²⁾ 이 시에서 성재는 정사를 방문하여 느낀 흥취를 표현하였다. 특히 ‘붉은 꽃’, ‘푸른 숲’, ‘국화 잎’, ‘흰 눈’이라는 시어를 사용해 계절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四時의 巡幸은 절로 그러한[自然] 이치를 잘 보여준다. 봄에 핀 꽃이 떨어져 여름의 푸르름을 얻고, 가을에 잎이 떨어진 후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은 성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성재는 천지가 만물을 내는 움직임으로 서의 계절의 순행을 그대로 포착하여 표현한 것이다.⁴³⁾ 이어서 성재는 이 조화로움 속에서 특별한 흥취를 느낀다. 자연의 조화로움을 이해한 상황에서 물을 바라보니 수면 위에 달빛이 즐겁게 느껴진 것이다. 아마도 그가 이 달빛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사물의 자연스러움

40) 琴蘭秀, 『惺齋集』 卷一, <孤山精舍>

41) 琴蘭秀, 『惺齋集』 卷一, <溪齋賞菊>

42) 琴蘭秀, 『惺齋集』 卷四, <日洞山水記[琴格]>

43) 『心經附註』, <牛山之木章>, “天地生物, 以四時運動, 春生夏長, 固是不息, 雖秋冬凋落, 生意未嘗不在其中, 學者常喚令此心不死, 則日有進.”

에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溪上書堂에서 국화를 보고 지은 시이다. 계상서당은 퇴계가 後學을 가르쳤던 장소이다. 성재는 가을 날 서당의 경치를 玩賞하며 자연의 이치를 실감한다. 성재의 시선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점차 옮겨가는데, 하늘과 땅으로부터 숲속 단풍나무와 뜰에 있는 꽃이 그것이다. 성재의 시선 속에 사물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을 날 단풍이 들고 지고, 그 쌀쌀한 날씨로 인해 꽃에 서리가 내려앉은 경관을 묘사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성재가 자연의 절로 그러함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늘과 땅이라는 대자연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그는 天人合一을 이루고 있다. 이어서 성재는 자신을 陶淵明에 비유하며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飲酒>시⁴⁴⁾에서 국화꽃을 완상하며 속세를 떠나 자연과 합일된 즐거움을 느낀 도연명과 자신이 자연 속에서 느낀 즐거움이 비슷하다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성재의 시에는 성리학적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엔 계절의 순행과 같은 陰陽의 순환과 같은 天理가 내재되어 있다. 그의 시에 구현된 도학적 흥취는 대부분 도학의 직접적인 표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眞樂은 심재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자연과의 조화는 조장하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고 밝은 상태일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가 유유자적하여 더욱 生氣있는 자연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실천과 自得을 통한 도학적 세계의 구현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성재가 경 공부를 통한 심재의 마음 상태를 希求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심재는 선입견을 배제하여 사물

44) 陶淵明, 『陶淵明集』卷三, <飲酒>,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재가 심재를 회구한 것은 달리 말하면, 그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虛而待物, 즉 虛心으로 사물을 응대하는 것은 곧 주체와 사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주체인 작가는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바를 나름대로의 체계에 따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마련이다.⁴⁵⁾ 이러한 맥락에서 성재의 문학작품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의 현실인식과 대응을 추측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재의 문학은 道學者의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일찍이 사람의 본성은 모두 善함을 자각하였고, 이 때문에 종신토록 마음공부를 실천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⁴⁶⁾ 그러나 그가 도학적 이념이라는 다소 관념적인 것에 몰두했다고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성재는 퇴계가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을 충실히 따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잘 살피고 이해하고자 했다.⁴⁷⁾ 이는 그의 많은 문학작품이 일상생활 중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재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하여 도학적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忠信行蠻貊

충신은 오랑캐에게도 통한다는

吾聞古聖言

옛 성인 말씀을 나는 들었네

45) 사물은 ‘사(事)’와 ‘물(物)’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사’는 만사(萬事)로 인사(人事), 즉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물’은 만물(萬物)로 인공물과 자연물을 의미한다.(정우락, 『한국문학 연구 방법론의 내재적 모색』, 『한국문학과 예술』 33,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117쪽.)

사물의 정의 및 사물인식에 관한 논의는 정우락, 「16세기 士林派 作家들의 事物觀과 文學精神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3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를 참조 바란다.

46) 琴蘭秀, 『惺齋集』 卷三, <惺齋先生年譜>, 二十三年甲辰, “勸志讀書, 蚤知爲己之學, 嘗讀至人性皆善之訓, 惕然有警省也.”

47) 琴蘭秀, 『惺齋集』 卷一, <南征 並小序>, “庚申十一月也, 初九日拜先生於溪上, 進曰: 人之賢與愚貴與賤雖殊, 各自守其身, 蘭秀才薄不能成名於科目, 卽合屏迹山林, 耕理荒田, 是所分也, 而父兄在上, 不能自遂, 隨俗汨沒, 有失己之恨焉, 先生曰: 今欲使子知物情而行也, 子獨心知而愼之.”

使乎通聘後
應賴晏南藩

사신이어 통신사로 간 뒤에는
덕분에 남쪽 국경 편안해지리라⁴⁸⁾

이 시는 1590년 통신사를 파견할 때, 그 일행 중 한 명이었던 鶴峯 金誠一(1538-1593)을 전송하며 쓴 것이다. 이 작품은 성재가 성리학의 가르침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시문학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이러한 성향의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의 일기 기록이라든지 壬辰倭亂, 丁酉再亂 발발 이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상기했을 때, 분명히 주목할 만한 이유는 있다.⁴⁹⁾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의 현실 대응 방식이다. 당시 조선은 지속적으로 남부해안 지역에서 일본에 의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1590년 통신사 사절의 목적은 일본의 정세 파악과 전쟁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⁵⁰⁾ 이 시에서 성재는 도학적 이념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 忠과 信義로 오랑캐(일본)를 교화시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읊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성재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성리학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을 현실에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그가 일생동안 修身을 바탕으로 齊家治國平天下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행적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재는 出仕하기 전후로 動靜 속에서의 경 공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특히 動할 때의 마음공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음에 대해 ‘들락날락하여 붙잡을 수 없는 것’⁵¹⁾이라며 마음을 ‘活物’로 여겼기 때문이다.

48) 琴蘭秀, 『惺齋集』 卷一, <又贈一絕>

49) 일본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성재는 守城將의 직첩을 받고 마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의병 모집에 아들을 보내 응하거나, 軍糧米를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일에 대응했다. 또, 전쟁이 끝난 후엔 각박해진 백성들을 위해 鄉約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50) 윤경하,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전쟁정보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5~21쪽.

그렇다면 살아있는 마음을 操存하는 것과 제가치국평천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마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제가치국평천하와 같은 일들에 대해 완전히 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경부주』에 이르기를 “만일 일이 앞에 닥쳤는데도 자신이 도리어 靜을 주장하고자 하여 頑然히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마음이 모두 죽은 것이다.”⁵²⁾라 하였다.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수한 일(事 또는 사물) 속에 존재한다. 그 일을 피해 도망가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 방법은 오히려 마음을 죽이는 방법이다. 그 사물을 대함에 마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물에 응하되 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마음공부의 성취로서 나타난 시작품은 성재의 현실 대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성재의 실천성과 관련해서 그 이면에 自得을 중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시를 보자.

溪源沿泝得從君	시내의 근원을 따라 거슬러 그대 좇으니
開豁衿懷似罷雲	탁 트인 흉금은 구름이 걷힌 것만 같네
學道由來貴自得	도를 배우는 데는 본래 자득함이 귀한데
役心科目奈迷門	과거 공부에 마음 써 문 찾지 못하면 어찌하랴

위 시는 白雲洞書院에서 三松堂 南夢鰲(1528-1591)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여기서 시내의 근원은 道學의 근원을 말하는 것으로, 성재 자신이 수양을 통해 성리학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修己를 실천하니 절로 막히는 곳이 없어 豁然한 가운데, 성재는 문득 깨달음을 얻는다. 도를 배우는 방법은 스스로 터득함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다. 성재는 자득하는 방법에 있어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그 예로 1559년 惺齋에 방문한 艮齋 李德弘(1541-1596)에게 사람의 性善을 기르기 위

51) 琴蘭秀, 『惺齋集』 卷二, <上退溪先生>, “有時對卷, 此心乍出乍入.”

52) 『心經附註』 卷三, <牛山之木章>, “若事至前而自家却要主靜, 頑然不應, 便是心都死了.”

해 『小學』을 배우라고 했으며,⁵³⁾ 성재 스스로도 『소학』을 소중히 여겨 날마다 禮를 행하고 싶다고 퇴계에게 질문을 한 일화도 전한다.⁵⁴⁾ 즉, 성재의 학문 바탕에는 실천을 통한 자득을 중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성재의 마음공부와 그 시문학은 이러한 도학적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학문적 태도의 자장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惺齋 琴蘭秀는 退溪의 문인으로서, 24세 때부터 『心經』을 접하며 마음공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본고는 성재의 마음공부와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시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마음공부와 시 창작이 지닌 의미를 살핌으로써 성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재’라는 號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마음공부에 있어서 敬을 중시했다. 경을 실천하고, 마음에 경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곧 聖人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성재는 안연의 ‘心齋’를 닮고자 노력했다. 심재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으로, 마음에 경의 상태를 유지해 사욕을 비우는 것이다. 또, 성재는 마음공부에 있어서 ‘조장하지 않는 것[勿助長]’을 강조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경 공부를 통해 심재를 이루어 순전한 마

53) 李德弘, 『艮齋集』 卷三, <上退溪先生 辛酉>, “己未春, 聞琴公棲惺齋, 泝東溪而尋訪, 因處一月, 琴公每歎曰, 人性初無不善, 而汨於私欲, 不知本體之善, 可勝歎哉, 弘驚問曰何如, 曰讀小學則可知也, 後日棲月瀾, 始讀小學, 悚然點檢前日之事, 汗出沾背.” 간재는 18세(1558년)되던 해 청량산에 머물며 『古文眞寶』를 배우며 성재와 인연을 맺었다. 성재가 그에게 『소학』을 권유한 것은 그 다음해의 일이다.

54) 琴蘭秀, 『惺齋集』 卷三, <惺齋先生年譜> 三十二年 癸丑, “居家素有禮法, 欲父子兄弟逐日行拜, 仰質於師門, 先生舉徐節孝, 安吏判故事答之, 又曰此事處之得宜甚不易, 既不可率意直行, 又不可遂廢不行, 但平日積其誠意, 行來行去, 一家孚信既著, 則其所未行者, 猶可以次而舉之也.”

음을 보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재는 꾸준히 일상에서도 마음공부를 도모했으므로, 그의 시에 이에 대한 노력과 성취를 찾아볼 수 있다. 마음공부와 관련된 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本然之性을 회복하기 위해 비어있으면서도 고요한[虛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심재의 마음으로 자연을 관조하며 興趣를 느끼는 것이다. 전자는 마음공부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면 후자는 마음공부가 體化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내재된 즐거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성재의 마음공부와 그 시문학이 지닌 의미로서, 성재의 현실 인식과 대응 문제를 살펴보았다. 성재는 다양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하여 도학적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즉, 성재는 도학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 그 이면에 실천과 自得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성재의 마음공부와 이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살펴보았다. 다만, 논의의 정밀함을 위해 성재의 모든 문학 작품을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성재의 문학 작품은 양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그 안에 다양한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재일기』도 함께 살펴본다면 일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2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琴蘭秀, 『惺齋集』

금난수·박미경 옮김, 『惺齋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2019.

李德弘, 『艮齋集』

진덕수, 성백효 역, 『心經附註』, 전통문화연구회, 2006.

김기주, 「『心經』에서 『心經附註』로: 미완의 ‘朱子學의 心學」, 『퇴계학논집』 13, 영남퇴계학연구원, 2013, 87~112쪽.

김병일 외 12인, 『영남 선비들의 공부론과 지역 문헌』, 경상북도청년유도회, 2023.

김종석, 「『성재일기』에 나타난 16세기 재지 사족의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73~105쪽.

박현순, 「성재 금난수의 수학과 교유」, 『역사문화논총』 4, 신구문화사, 2008, 35~73쪽.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연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215~252쪽.

안영석, 「성재 금난수의 실천적 위기지학」,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원, 2020, 163~190쪽.

오석원, 「『심경』의 구성과 수양론 연구(二)」, 『동양철학연구』 37, 동양철학연구회, 2004, 111~142쪽.

이연순, 「성재 금난수의 생애와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 한국국학진흥원, 2020, 107~140쪽.

이유정, 「전국시대 문헌에서 마음[心]의 의미와 마음공부의 방법: 『장자』, 『관자』, 『순자』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6-2, 한국교육사상학회, 2022, 155~182쪽.

이치억, 「敬의 철학과 理의 철학」, 『퇴계학논집』 17,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307~335쪽.

윤경하,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전쟁정보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50쪽.

- 정우락, 「16세기 士林派 作家들의 事物觀과 文學精神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3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133~195쪽.
- 정우락, 「한국문학 연구 방법론의 내재적 모색」, 『한국문학과 예술』 33,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111~149쪽.
- 조성환, 장지영, 「퇴계학에서 마음과 생명의 만남」, 『퇴계학논집』 1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93~117쪽.
- 최영성, 「惺齋 琴蘭秀의 ‘學退溪’ 精神과 ‘主敬涵養’ 工夫」, 『퇴계학과 유교문화』 29,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145~168쪽.

Abstract

Sungjae Geum Nan-su's Pursuit of Shimjae(心齋) and its meaning

Shin, So-you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ungjae's mind study and how these academic efforts were embodied in poetry. In addition, I tri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Sungjae by revealing the meaning of mind study and its poetry literature.

Sungjae is a writer of Toegye(退溪) and has been interested in studying his mind since he was 24 years old. He emphasized Gyeong(敬) in studying the mind, especially trying to resemble the "Shimjae(心齋)" of Anyeon(顏淵). He maintained his heart by emphasizing the securing of "silence" through Gyeong(敬) and emphasized an "unpromising[勿助長]" attitude.

Sungjae steadily promoted mental study in his daily life, so he can find effort and achievement in his poetry. Poetry is largely divided into two aspects. One is to pursue a Hujung(虛靜) state in order to restore Bonyonjisong(本然之性) and the other is to see nature with the heart of Shimjae and feel pleasure. The former shows an active practice of mind study, while the latter shows the joy inherent in it, although it is embodied.

On the other hand, as the meaning of Sungjae's mind study and its poetry literature, the problem of reality recognition and response was noted. He had interested in various things, and wanted to respond to the reality of reality. In other words, Sungjae made an effort to realize

a moral worldview, and behind it, it can be seen that practice and self-satisfaction(自得) work importantly.

keywords :

Sungjae Geum Nan-su(琴蘭秀), 『Classic of the Mind(心經)』,
『Extended Annotations of Classic of the Mind(心經附註)』,
Shimjae(心齋), self-acquisition(自得)

